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이 문서는 '장애인차별 금지법' 관련
웹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
"사본 PDF" 문서입니다.

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		일 시	2017.2.7.(화) 14:00
		장 소	본부관 312호
참석위원	정승렬(위원장), 이호선, 김인준, 이태준, 전수빈, 김민주, 김태호 (이상 7명)		
업무지원	간사 : 조 준 / 서무 : 안정민		
불참위원	없음		
의 제	2017학년도 본 예산(안) 심사의결		

◎ 회의내용

1. 개회선언

■ 위원장

- 재적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, 2017학년도 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- 지난 4차에 걸친 등록금 심의 결과에 따라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을 편성하였으며, 대학평의원회의 두 차례 자문을 거쳤음.
- 오늘 회의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에 대한 심사의결을 안건으로 함.

2.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 심사

■ 위원장

-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응답 및 의견 개진을 진행하기로 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 심의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지만, 학생 측에서 인지하는 합의 사항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 다는 것이며, 등록금 인하냐 동결이냐에 대한 최종합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등록금 책정(안)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의를 통해 등록금 심의는 충분히 진행되었으며, 최대한 하나의 안으로 심의결과를 확정하고자 하였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두 가지 안으로 심의결과를 확정하였음.
- 총장은 학교의 경영자로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며, 이를 토대로 작성한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에 대해 건설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금일 회의에서 진행해야 할 절차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제4차 회의에서 학부 등록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서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동결 및 5.7% 인하를 제시했는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 차를 더 좁힐 수 있다고 생각했음.
- 고등교육법 제11조에 학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되어있지 선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.
-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에 대해 좀 더 심의를 해야한다는 것이 학생 측의 입장임.

■ 위원장

- 네 차례에 걸친 심의 과정을 통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두 가지 안을 확정된 것이고 학생 측에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도출한 심의결과라고 생각함.
- 예산 편성 관련 실제 업무 과정을 감안하여 2017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시작부터 네 차례 정도의 심의 일정을 제안하고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총장이 등록금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결정하였겠지만 실제로 학교 측 제안을 선택한 것이고, 그에 따른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이 대학평의원회에 제출되었음.
- 학생 측 의견도 존중하여 본 예산(안)이 편성되었다면 대학평의원회 의원들도 학생 측의 (안)을 인지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하여 안타까움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것은 학교 경영자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임.
- 경영자 입장에서는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고 싶어도 학생 측 입장을 존중하여 인상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학생 측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대학평의원회에 제출한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 자료에 학생 측에서 제시한 의견도 첨부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며, 긴축 재정 운영으로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하였는데 조금 더 긴축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었을 것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교 전체 예산 규모 중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약간 상회하며, 등록금 수입이 좀 더 늘어야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 억제로 긴축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임.
- 등록금 심의에서 ‘심의’는 ‘숙의’와 동의어로 볼 수 있고, 네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충분한 숙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실제 업무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(안)에 대한 심사-의결을 한다는 것은 등록금도 의결사항에 포함된다는 것이므로 조금 더 등록금 산정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 학생 측 요구사항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올해 대부분 대학들이 정부의 관련 규제로 인해 억지로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으며, 그만큼 대학들의 어려운 재정 상황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음.
- 학생 측에서 원하는 것은 학우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, 학부 등록금 인하가 아니더라도 생활비 장학금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임.

■ 위원장

-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로 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의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, 주요 계정과목의 수입, 지출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교지, 교사 확충 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, 적립금 이자수입이 사용되는 내역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적립금 이자수입은 전체 수입 하나로 적립금을 인출하게 되면 이자수입까지 합산된 금액에서 인출하는 것이지, 이자수입만 별도로 사용처를 구분하지는 않음.

■ 간 사

- 적립금 이자수입액으로 대출금 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는 의미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교발전기부금 수입 예산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간 사

- 2016학년도 본 예산 편성 시에는 개교 70주년을 기념하여 많은 기부금 수입을 예상하였으나, 2017학년도의 경우 이전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기부금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학교의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을 신설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,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학교회계 전출금에 대한 언급이 있음. 2015년에 전출금이 증가하였다가 2016년에는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산학협력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교비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며, 산학협력단 스스로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교비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상황임.
- 2015년에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여 학교 전출금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LINC 사업과 BK21 사업도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하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간 사

- 산학협력단에서 모두 수입, 지출을 관리하고 있으며, BK21 사업의 경우 대응자금은 교비회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경전철 역명 유치 건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대외협력처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, 고유 역명 아래에 학교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학교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유에 대해 질의함. 지난해 복약발전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강의평가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저렴하다는 얘기가 있었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은 보안문제 등 여러 사유로 진행되는 것이며, 학생들이 제안한 사항이 반영된 것인지는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겠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생활관 관리비 수입이 줄어든 이유와 노원생활관 운영을 종료하게 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생활관 관리비 수입 감소는 노원생활관 운영 종료에 따른 것이며, 노원생활관은 원거리에 위치해서 학생들의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종료하였음.
- 아울러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학교 인근에 새로이 기숙사를 임대하였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대학원 장학금 총액이 증가하였는데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동시에 장학금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각 대학원은 자율성을 강조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, 등록금 수입의 일

정 비율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.

- 대학원 장학금이 증가한 것은 곧 각 대학원에서 운영비를 삭감하고 장학금을 증가했다는 의미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경상비 전입금은 안들어오고 있는데 자금예산서(안)에는 항목이 표기되어 있음. 경상비 전입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간 사

- 2015학년도에는 경상비 전입금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며, 사학회계 기준상의 모든 계정과목을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경 때에는 정리할 예정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부 등록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간 사

- 휴학생 등록금 납입 방식 변경에 따라 휴학생의 등록금을 미리 받지 않도록 되었으며, 1주기 구조개혁 관련 입학정원 자율 감축이 있었기 때문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자금예산서(안) 일부 수입 항목의 증감액과 비고란의 내역에 있는 합계 금액이 불일치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.
- 아울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,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학교 전출금에 포함되어 전출된다고 하였는데 본 예산(안)에는 그 내용이 없음.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위원장

-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평가팀과 산학협력단의 실무 담당자를 불러 질의하기로 함.

===== 잠시 휴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함 =====

■ 예산평가팀 담당자

- 대여료 및 사용료와 임의연구기금인출의 비고란 설명에 오자가 있었으며,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 계정과목별 금액 및 증감액은 편성된 본 예산(안)과 동일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교원 급여 항목 관련, 교원 퇴직자 수보다 신규 임용자 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대학 전체의 교원확보율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며, 신규 임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도 감안하여 약간 더 임용하는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조경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, 관련 항목 중 ‘정문 앞 광장 쉼터’는 무엇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생 휴게 공간에 대한 보수비용이며, 정문 앞 광장 쉼터는 정문 앞 분수대와 버스정류장 사이에 설치하는 것으로 뜨거운 여름이나 우천시에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사항임.

■ 위원장

- 산학협력단 예산 담당자가 오셨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함.

■ 산학협력단 예산 담당자

- 산학협력단의 활동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으로 대별되며, 수익발생을 위해 투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고유목적사업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대표적인 예가 교비회계 전출금으로 이는 비과세 대상임.
-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, 교수 연구에 대한 지원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도 일정 규모의 시드머니가 필요함.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출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산학협력단의 전출금에 명시가 되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산학협력단 예산 담당자

- 산학협력단 결산 후 법인세 신고 시 교비회계 전출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받게 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건축물 관리비 항목의 교내 교육환경 개선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진행되

는지, 관련 예산은 시설팀에서 올라오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각 공사의 구체적인 진행 시기는 알 수 없으며, 예산요구는 각 실무부서에서 올라온 사항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2016학년도 예산 대비 시설용역비 증가액은 최저임금 인상을 7.3%보다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, 청소용품 및 수위용품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함.

■ 예산평가팀 담당자

- 추가 교사 확보에 따른 청소용역 수요 증가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이며,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더 증가할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차량리스임차료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예산평가팀 담당자

- 업무용 차량을 신규 구매하는 것 보다 리스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실무부서의 검토결과에 따른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난방비 지출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등록금 동결 책정에 맞추어 증가시킨 것은 아닌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관련 부서에서 예측한 수치를 반영한 것이며, 다소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지출이 불가능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일반용역비 항목에서 홈페이지 개발 유지보수비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간 사

- 대학의 메인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학부(과),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많이 있으며, 2017학년도의 학제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일반용역비 중 위탁소송용역비가 증가한 이유와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교 부지 무단 점유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, 강제 집행에 필요한 이전 비용 등 일정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.

■ 예산평가팀 담당자

- 업무추진비가 증가한 이유는 대외협력부총장이 작년 9월에 신설되어, 2016학년도에는 6개월분만 반영되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교외장학금 중 기타 외부장학금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예산평가팀 담당자

- 기타 외부장학금은 민간단체, 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장학금이며 발생하는 경우에만 집행하는데, 경영대학 및 조형대학에서 작년에 책정한 기타 외부장학금이 올해는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평생교육원 및 제로원디자인센터 학생지원비가 전년대비 많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예산평가팀 담당자

- 평생교육원 및 제로원디자인센터 수강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관련 비용이 증액된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2016학년도에는 본 예산(안) 대비 추경 수입이 감소하였으며, 수입이 증가한다고 하여 반드시 지출도 증가시켜야하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수입 증가는 학생 수 증가 예측에 따른 것이며, 학생 수 증가에 따라 모든 지출 항목의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출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.

- 2016학년도에도 전년 대비로는 수입이 증가하였음. 다만, 본 예산(안) 편성 시 예상 수입 금액을 의욕적으로 높게 잡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수입 금액을 줄인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통학버스 지원 비용이 감소한 이유와 각 단과대학 학생활동 지원 금액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예산평가팀 담당자

- 통학버스 횟수를 줄인 것은 아니고 버스에 부착하는 학교 광고판을 설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소요 비용이 감소하였으며, 단과대학 학생활동 지원비는 각 단과대학과 대학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도서구입비가 감소하였는데 도서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 공간을 확충해서라도 도서구입을 늘려야하는 것 아닌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도서구입비 감소의 주요 원인은 인쇄된 정기간행물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며, 점차 전자저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.
- 전자저널 독점 업체에서 해마다 구독료를 인상하고 있으며,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에서도 대외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주기 바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서 구입은 큰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예산평가팀 담당자

- 사전질의서 답변에도 명시하였듯이,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 1인당 도서 증가(2권) 확보 및 학생 1인당 70권 이상의 도서 확보를 유지하고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임대보증금상환 금액의 내역에 대해 질의함.

■ 예산평가팀 담당자

- 복지관에 위치한 우리은행의 보증금이며, 보증금은 수입이 아니라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반환해야하는 학교의 부채이므로 예산상으로 책정되어 있어야 함.

■ 위원장

-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에 대한 세부 질의·응답을 진행하였으며,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교지, 교사 신규 확충 관련 사항이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에 반영되어 관련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우려됨.
- 학생 측에서 당초 등록금 인하 근거로 제시하였던 예비비, 적립금 관련 사항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은 교지, 교사 신규 확충과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 대부분이며, 교지, 교사 신규 확충에 따른 사항은 적립금 인출 및 대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임.
-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에는 반영하였으나 교지, 교사 신규 확충 계획이 변경되면 추경에 반영되어 계정별 금액이 변경될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교지, 교사 신규 확충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, 적립금 사용과 금리 인상에 따른 대학의 재정 압박 등을 고려해야하고, 구성원들의 동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져야 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교지, 교사 신규 확충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으며, 등록금 인상 요인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것이지 교지, 교사 확충과는 무관한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교지, 교사 신규 확충 관련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하였지만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으며, 대학평의원회에서도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음.
- 대학 구성원과의 충분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할애되어야 함.

■ 위원장

-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에 대한 질의응답 및 심사는 이상으로 충분한 것인지 위원들에게 질의함.

■ 위원일동: 동의함.

■ 위원장

-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에 대한 의결 절차를 진행할지 위원들에게 질의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등록금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정리해주시기 바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법적 명칭이 등록금심의위원회로 통일되어 있으나, 오늘 회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라기 보다는 예산심사위원회의 성격을 띤 자리임.
- 등록금 산정을 위한 심의절차는 제4차 회의에서 종료된 것이므로 등록금을 재산정할 수 없으며, 오늘은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본 예산(안)에 대한 심사의 결하는 회의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교 측에서 제시한 생활비 장학금은 신설이 가능한 것인지,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에 책정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용도의 장학금을 신설할 의지가 있으며, 예산(안)에는 계정과목별 총액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장학금의 용도까지는 명시하지 않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조경관리비에 책정된 정문앞 광장 내 쉼터 설치비 2억원을 줄여서 그만큼 생활비 장학금으로 확충하는 것을 제안함.
- 아울러 학교 측에서 생활비 장학금 신설 제안을 해주셨으므로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시 한번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각 계정과목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예산(안) 심사는 완료되었으며, 오늘 회의에서 의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심사의결 결과의 부대의견으로 처리할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생활비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보고가 꼭 필요하며, 생활

비 장학금 신설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라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한번 더 개최해야 함.

■ 위원장

-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 의결 관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한번 더 갖는 것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구함.

■ 위원일동: 동의함.

■ 간 사

- 금일 회의에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의 계정과목별 금액은 변동없이 그대로 두고 비교란의 일부 오자만을 수정하여 차기 회의에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함.

■ 위원일동: 동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교 측에서는 2017학년도에 교내장학금 내 생활비 장학금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규모와 지급 방법은 학생처를 통해 논의할 것임.
- 생활비 장학금을 2017학년도에 한해 약 1억원 규모로 하여 기존 장학금과 별도로 마련하겠음.

3. 폐회선언

- 차기 회의는 2017.02.08.(수)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정하고, 폐회를 선언함. 끝.

2017. 2. 7.

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